

대기업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환경부의 기업 실명 공개를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환경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출업체는 12곳으로 총 15건이다.

수사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외에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검찰, 배출업체 12곳 수사 중

적발기업, 공개 기준 의문 제기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업체 8곳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측정 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청은 이날 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업체 4곳, 6건의 혐의를 추가 송치했다. 또 적발된 대행업체에 송치된 배출사업장 235곳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

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이에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시설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가 일부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을 인지했고 측

정자료 수정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업 중 일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적발된 기업을 공개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모 사실이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포가 될 수 있다. 철저한 수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 저수지서 50대 낚시객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낚시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47분께 북구 금곡저수지에서 A(58)씨가 수색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부터 일행 3명과 함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홀로 차량을 몰다가 저수지 옆 농로길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견인차 기사를 부른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들은 "A씨가 술에 취해 움막에서 자고 있다고 여겼다. 다음 날(13일) 아침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행과 가족 진술 등으로 미뤄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이동하던 중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중국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목포와 중국을 오가며 28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목포와 중국 등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로 운영총책 A(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와 중국 심천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 등을 임대해 사무실을 차린 뒤 모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28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이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목포에서 운영하던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중국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각각 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공급 등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개설해 A씨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압수해 운영자금을 파악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 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 서버관리자, 도박 참여자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CCTV 관제센터에 걸린 차털이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새벽 시간대 주차된 차량을 털러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 미수)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에 광주 서구 삼촌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2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한 남성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다닌다. 차털이가 의심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이씨를 붙잡았다.

만취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낸 2명 입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와 20대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A(61·여)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택시에는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개인 위생관리 당부

광주지역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7개 협력병원의 내원 또는 입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19.8%(46건 중 9건 양성)였던 검출률이 5월 들어 31.8%(38건 중 12건)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가운데 수족구병은 지난 3월 검출률이 71.4%에서 5월 현재 83.3%(6건 중 5건 양성)로 급증했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수족구병(18건)의 유전자형은 모두 엔테로바이러스 71형으로, 중추신경계에 감염이 되면 마비증상과 뇌염 증상을 보인다. 심할 경우 폐수종을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3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식품 등을 통해 전파된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발열, 두통이나 손·발·입 안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엔테로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선생님 사랑해요” 제38회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 꽃을 들어보이며 선생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5·18행사위 “39주기 행사, 황교안 대표·극우단체 집회” 반대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와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참석과 보수단체 집회 반대"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주기를 앞두고 역사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진상조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는 자들은 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앞에 약속한 왜곡처벌법 제정은 정치권의 허구호로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5·18 목념을 금지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 법제정도 가로막고 있고 5·18을 모욕했던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고 5월영령 앞에 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사과와 법제정에 대한 구체적 약속, 조건없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광주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18일 39주 기념식이 열리는 당일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극우단체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극우단체는 17일과 18일 총장로와 금남로, 방월동에서 전야

제와 국가기념식에 맞춰 맞불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제사상을 걸어서겠다는 폐륜적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들러 "이는 숭고한 5·18민주항쟁과 광주를 이념대결의 정치논리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며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5월정신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방문과 극우단체의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5·18 그날 처럼 광주시민들이 금남로와 방월동에 모이는 것 뿐이다"며 5·18 39주기 전야제와 기념식 시민 참석을 호소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